

# 시각장애자를 위한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점자도서관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nformation Services for Blind People

- Focused on Braille Libraries in Korea -

김 지 현(Hyun-Ji Kim)\*

### 초 록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 이른바 IT대혁명으로 시각장애인의 정보환경이 변화하면서, 점자도서관의 위치가 흔들리고, 점자도서관의 존재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왜냐하면 반드시 점자도서관을 통하지 않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선행된 시각장애인의 정보서비스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점자도서관의 위치와 그 의미를 확고히 하고자,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점자도서관의 서비스 변화의 동향을 분석한 후, 점자도서관 서비스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의 점자도서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과 직접, 간접적으로 관련된 점자도서관서비스의 동향이 여러 면에서 보였으며, 이러한 동향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점자도서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을 보조하는 기능,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여 종래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 셋째, 인터넷과 관련된, 점자도서관 본래의 기능 이외의 기능. 이러한 기능들은 시각장애인이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점자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므로 정보환경이 변화한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점자도서관의 위치는 더욱 확고해질 것이며, 존재의 중요성이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 ABSTRACT

A braille library undoubtedly changes with a changing information environment. However "changing information service" as a topic couldn't be found among previous researches. That's the reason it felt necessary in this paper to analyze the way service in a braille library changes according to a changing environment, as well as to make clear the meaning and the role a braille library has for blind people. As a first step, a questionnaire aimed at Korean braille libraries was carried out in order to understand changes of library service. Results showed that most changes in braille library service were due to the influence of internet, directly or indirectly. In this connection, the way braille libraries made us of this new tool was analyzed as follows. Firstly braille libraries were found to help a better circulation of information from internet towards blind people. It appeared secondly that internet was also used in order to improve already existing services as well as new services. Thirdly libraries were shown to have developed new services related to internet although these services weren't initially library ones. These new aspects of library service constitute by themselves a proof of the importance of braille libraries, although blind people might in some cases obtain the wished piece of information without them. Therefore braille libraries prove to be remained necessarily even if information environment changes.

키워드: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자, 점자도서관서비스, 인터넷, 복지기능

\* 교토대학대학원 교육학연구과 교육과학전공(aoisora76@p01.mbox.kyoto-u.ac.jp)

논문접수일자 2002년 5월 24일

게재확정일자 2002년 6월 10일

## 1. 서론

### 1.1 연구 배경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점자도서관의 위치가 변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점자도서관은 크게 두 가지의 역할을 행하여왔다. 한가지는 자료를 대출하는 기능, 또 한가지는 자료를 가공하는 기능이다. 자료대출기능이란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다른 일반도서관과 그 기능이 다르지 않다. 이것은 도서관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능이다. 반면 자료를 가공하는 기능은 시각장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자도서관이 가지는 특수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자는 활자 정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점자나 녹음이라는 형식으로 변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점자도서관에서는 시각장애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기 이전에 활자정보의 가공이라는 중요한 작업을 수행해왔다. 이 정보를 가공하는 기능은 점자도서관 이외의 곳에서는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각장애자가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점자도서관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즉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점자도서관은 활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이었다.

한편 오늘날은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급되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회의 일반인은, 지금까지의 이상

으로 질과 양, 확대된 정보를, 인터넷이 연결되는 컴퓨터가 있으면 어디서든 시간대에 상관없이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면 정보를 그 양이나 시간,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폭넓게 얻을 수 있게 되어, 일반인에게 있어서 정보입수의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볼 때, 인터넷 등장이후의 사회 변혁은 IT혁명이라고도 불린다.

심지어 인터넷과 시각장애자와의 관계를 관찰해보면, 시각장애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 왜냐하면, 일반인에 비해 아주 적은 양의 문자정보 밖에 얻을 수 없었던 종래의 상황과는 달리, 시각, 시간, 장소에 제한 받지 않고 폭넓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각장애자의 입장에서 인터넷 등장이후의 변혁은, 이른바 IT대혁명이 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장애자의 IT대혁명으로 인해, 점자도서관<sup>1)</sup>은 활자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이라고 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활자정보의 전자화가 진전됨에 따라, 점자도서관의 특수한 기능이었던 정보 가공의 기능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점자도서관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 범위, 정도 등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 즉 "인터넷의 등장으로 점자도서관의 존재는 무의미하게 되어버리는가"라는 의문이다.

1) 본 논문에서는 각종 점자도서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특수점자도서관: 독립된 건물을 가지고 시각장애자에게 서비스 하는 도서관. 한국점자도서관, 각종 복지관 부설 점자도서관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점자도서관: 공적인 기관에 부속되어 서비스하는 기관. 공공도서관 내의 점자도서관, 구청내 점자도서관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점자도서관: 위의 두 종류를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시각장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통칭한다.

그러나 점자도서관에 미치는 영향들만으로 점자도서관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를테면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점자도서관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점자도서관이 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점자도서관이 변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점자도서관이 그 중요성을 유지하면서 시각장애자에 대한서의 역할을 보다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점자도서관서비스의 동향에 대해, 현황을 파악해가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

## 1.2 연구 목적 및 방법

이상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종래의 점자도서관의 서비스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점자도서관서비스의 실태를 새롭게 조사함으로써,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 진전하고 있는지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동향분석을 바탕으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문헌조사를 통하여 기존의 점자도서관서비스를 살펴보는 한편,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점자도서관의 서비스 상황을 보다 상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의 목적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충하고 점자도서관의 인터넷서비스의 동향을 살피기 위해, 현재의 서비스현황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 직접 관련된 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질문까지 폭넓게 포함하였다. 설문지를 돌린 기간은 5

월말부터 7월말까지 두 달간이며, 조사대상은 한국점자도서관협회에 가입해있는 점자도서관의 목록과, 인터넷상으로 검색된 정보의 양쪽을 참고로 추출한 46개관으로, 공공도서관내의 점자도서관 20개관(43%), 복지관내의 점자도서관 9개관(20%), 특수점자도서관 17개관(37%)이다.

## 2. 선행연구

### 2.1 선행연구의 특징

한국에서 행해진 선행연구의 특징 중 하나는 시각장애자의 서비스에 관한 점자도서관의 실태 조사가 많다는 것이다. 실태조사가 최초로 행해진 시기는 1977년(이상근, 1997)이나, 본 연구에서는 이충재(1986), 설진화(1987), 신동렬(1990), 윤혜선(1992), 정영숙(1993), 김현경(1996), 박옥금(1997)의 선행연구 및 1998년의 필자의 연구를 대상으로 했다. 연구가 행하여진 연도로 보아, 한국에서는 지속적인 점자도서관에 관한 실태조사가 행하여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실태조사에는 몇 가지 공통되는 항목이 있다. 즉 각 점자도서관의 시설, 자료, 직원, 자원봉사자 및 도서관의 봉사현황에 관한 조사 항목 등이다. 또한 각 조사에 따라 개별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다. (1)이충재(1986), 김현경(1996)의 조사는 점자도서관뿐만 아니라 맹학교 내의 도서관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2)설진화(1987), 신동렬(1990), 정영숙(1993)의 조사는 이용자 조사도 겸하고 있어, 이용자

의 의견을 엿볼 수 있다. (3)김현경(1996)의 조사에서는 도서관간의 상호협력관계나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하여 보다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4)박옥금(1997)의 조사에서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점자도서관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5)1998년에는 1997년 이전의 선행연구의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도서관법의 기준에 따라 도서관 현황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필자가 행하였다.

다음절에서는 1986년부터 1997년까지의 선행연구의 실태조사 내용을 통하여 분석된, 종래의 점자도서관 서비스의 경향을 서술하고, 선행연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문제점의 분석은, 본 연구에서 실태조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질문의 내용 및 설문지 조사의 실시를 결정하는데 큰 참고가 되었다.

## 2.2 점자도서관 서비스의 경향

선행연구를 통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의 경향을 크게 자료제공서비스, 자료제공이외의 정보서비스, 그 외의 도서관서비스로 나누어 서술하기로 한다. 우선 자료제공서비스란 점자자료나 녹음자료의 요구를 받은 시점에서부터 이용자에게 대출하기까지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서비스는 시각장애자를 위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필요성이 인식된 이래 가장 중요시되어왔다. 자료를 제작, 제공하는 기관수가 증가하고, 서비스 대상도 제한된 지역에서 전국의 시각장애자로 확장되었다. 또한, 처음에는 유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도 무료화 했다. 자료제공에 있어서도 우송에 의한 제공 외에도, 지역 주민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직접배달로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수가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도서관이었다. 공공도서관에 점자도서관이 설치되면서 자료의 제작과 제공의 업무분담이 시작되어, 특수점자도서관은 자료제작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시각장애자가 이용 가능한 자료수의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자료제공서비스에 관한 인식은 점자도서관 업무중 가장 크고 중요시 되던 것에서 당연히 제공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료제공이외의 정보서비스(이후에는 “정보서비스”로 표기)란, 자료자체의 제공과는 달리, 이용자가 일반인과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도서관측에서 부수적으로 행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료목록의 발송이나 이동도서관의 운영, 신착 자료의 안내 등이다. 또 보다 많은 시각장애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한 도서관이나 서비스의 홍보도 정보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 홍보 활동은 전국의 시각장애자의 1할에도 미치지 않는 낮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강구책으로 1986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한국맹인도서관협의회”(현재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가 조직되어, 체계적인 서비스의 실시의 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당시는 자료제공서비스가 더 중요시되어 정보서비스는 부각되지 못했다. 실제로 서비스가 활기를 띤 것은, 정보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관수가 늘어난 1993년경부터이며, 그 후로 다양한 정보서비스가 시행되었다. 대면상담실의 설치로 이용자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며, 더욱이 시각장애자를 위한 상담서비스나 개별서비스도 행하고 있다. 신착 자료를 알리기 위한 목록 작성 및 배부, 약시자

를 위한 확대복사, 일반자료의 검색서비스, 전화에 의한 음성정보서비스 또한 각각의 점자도서관에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의 도서관서비스란 정보제공이외의 서비스로, 정보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영역의 서비스의 커다란 테두리는, 시각장애자의 일상, 지적생활의 원조라고 하는 복지기능의 충실 및 도서관간의 협력이다. 서비스의 시작은 1977년 한국점자도서관에 의한 맹인계몽방송이다. 그후 활발해진 것은 점자도서관간의 상호협력이다. 당초의 상호협력은 주로 자료교환이나 자료제작에 관한 정보 교환이었다. 그 후로부터 차츰 점자도서관에 관련된 자료나 맹인생활용구의 전시실을 설치하거나, 전국의 시각장애자나 전문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기능훈련원이나 맹인생활용구제작소, 점자신문사를 설치하고, 맹인생활용구의 개발과 보급, 중도실명자를 위한 상담, 점자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전의 서비스는 계속해서 제공되는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점자도서관수의 증가로 서비스 활동이 보다 활발해졌다. 또한 도서관간의 상호협력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서비스도 생겨났다. 많은 점자도서관에서 집회실 제공, 각종 클럽의 운영, 재활용품의 보급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프로그램, 도서의 판매도 하고 있다. 또 시각장애자의 보행안내나 귀가안내서비스도 행하고 있다. 1996년에는 시각장애자의 재활을 목적으로 한,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가 행하여지고 있다. 시각장애자가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기초재활, 즉 보행훈련이나 점자교육과, 시각장애자가 일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 등을 교육시키는 직업재활

이 그것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주로 특수점자도서관에서 행해졌다. 또 1997년에는 한국시각장애인복지회부설 점자도서관이 자료의 바코드 부착 및 대출업무의 자동화를 완료했다.

이와 같이, 자료제공서비스, 자료제공이외의 정보서비스, 그 외의 도서관서비스는 반드시 직선적으로 발전해온 것은 아니나, 서비스의 양, 폭과 더불어 확대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점자도서관과 달리, 복지의 목적이 큰 영향으로 작용하여, 시각장애자가 일반인과 동등의 지적 환경을 누를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왔다고 할 수 있다.

### 2.3 선행연구의 문제점

전술한 선행연구는, 점자도서관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한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는 점자도서관 자체, 즉 점자도서관의 내적, 외적 환경이나 행하고 있는 서비스, 그 이용에 관한 연구이며, 도서관을 둘러싼 정보환경의 변화에 의한 서비스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정보기술의 영향에 의한, 인터넷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조사항목에도 포함되어있지 않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를 위한 제안에도 언급이 없다. 다만, 김현경(1996)의 연구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인터넷이나 정보기술을 이용한 서비스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를 전후로 실제로는 인터넷에 의한 직접, 간접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의 연구에서도 이것에 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그 이유로서 두 가지를 생각

할 수 있다. 첫째는, 이 분야의 연구자로서 점자도서관의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는, 점자도서관서비스의 연구와 시각장애자의 정보기술의 연구가 따로 분리되어 행하여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정보기술을 논한 연구는 한결 같이 시각장애자를 위한 정보기술의 발전상황이나 인터넷에 의한 장애인서비스에 관한 내용으로, 시각장애자를 위한 서비스를 점자도서관과 연결시켜 행한 연구는 찾지 못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각장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기관은 점자도서관이기 때문에, 시각장애자를 위한 서비스에 관한 연구라면 점자도서관과 연결시켜 연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행하여지지 않은 것은 선행연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분야의 연구를 함에 있어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연구는 진정한 연구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즉 어떠한 환경변화로 인해 점자도서관의 서비스가 변화하고 있다면, 그 변화를 파악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변화하는 서비스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변화하고 있는 서비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현황조사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 3. 점자도서관의 서비스 현황 조사

해가 거듭됨에 따라 점자도서관의 현황이 변

화하고 있다. 1998년의 현황에서는 점자도서관이 총 30관이었으나, 2001년 현재는 총 기관수가 46관으로 증가했다. 이들 기관에 시각장애자의 정보서비스의 실태에 관한 설문지를 보내어,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회답을 받았다. 그 결과 46통 중에서 16통의 회답(회답률 약35%)과 1통의 반송, 그 외에 전화에 의한 답변이 3군데 있었다. 전화상의 답변으로는, 정식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서비스는 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설문지에 회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설문 결과 분석에서는 이들의 답변을 제외한, 16통의 회답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하에서는 설문지조사의 결과를, 각 항목 순으로 서술하였다.

#### 3.1 이용현황

회답을 얻은 16관의 이용현황을 보면, 시각장애이용자가 최소 18명부터 최대 7,200명까지 각 점자도서관별로 회원<sup>2)</sup>으로 등록되어 이용되고 있다. <질문2>의 회답결과, 작년 1년간 실질적인 이용자수는 등록이용자수의 평균 48%였다. 다만, 평균 48%라고 하는 수치에 대해서는, 점자도서관에 따라서 등록이용자수 및 실질이용자수의 폭이 넓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자료의 이용률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각 점자도서관의 소장 자료의 합계에 관해서는, 종합목록의 없음과 각 점자도서관의 자료의 중복을 고려하면 이용자수의 합계와 같은 확실한 수치나 확률은 파악하기 힘들다. <질문3~5>의

2) 이 조사항목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원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그 점자도서관을 한번이라도 이용해서 등록된 이용자를 말하며, 한사람이 다수의 점자도서관에 등록되어있는 경우도 있다.

회답을 토대로, 실질이용률(자료의 대출률)을 추정할 수 있었다. 16관의 소장자료의 타이틀수 <질문3>을, 중복하는 자료도 포함하여 모두 합계한 결과, 녹음도서는 49,981타이틀, 점자도서는 12,052타이틀이 있었다. 또 작년 일년간 16관의 대출자료의 타이틀수(질문5)의 합계는 녹음도서가 19,840타이틀, 점자도서가 2,519 타이틀 있었던 것으로부터, 대출률은 녹음도서가 약 40%, 점자도서는 약 21%정도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질문4>에서 총대출책수, 즉 자료이용의 총수는 녹음도서가 148,109번, 점자도서가 33,888번이었다. 더욱이 각 점자도서관의 소장자료에는 점자도서나 녹음도서 이외에도 점자잡지 80타이틀, 녹음잡지 30타이틀, 플로피도서 2,707타이틀, 녹음CD 804종류, 음악테이프 127종류 등의 자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의 대출횟수나 대출된 타이틀수에 관해서는 회답이 없는 관이 많기 때문에 대출률등을 환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 3.2 자료제공서비스면

<질문6>에서는 자료의 대출요청의 방법 및 건수를 조사했다. 결과는 표 1과 같다. 전화로

요청하는 방법이 가장 많은 이유는, 시각장애자의 도서관 왕래가 쉽지 않고, 일반적으로 집에서 전화를 통하여 자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내관해서 요청하는 방법보다 인터넷을 통한 요청이 적은 것은, 시각장애자의 컴퓨터 보급률이 낮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자도서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직접방문, 도서관 관계자나 아는 사람을 통해 신청, 편지 혹은 반환도서 속에 메모를 넣기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자료 반환시 다른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을 이용한 곳은 3군데로, 약 150건이 행해지고 있었다.

자료의 대출방식에 대해서는 <질문7>에서 물었다. 그 결과는 표 2이다. <질문6>과 같이, 내관하기 힘든 시각장애자를 위해 자료를 우송하는 방법이 제일 많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집으로 직접 배달하거나 혹은 이동도서관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이용자 가까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방법도 많다. 그 외의 의견으로는, 정기이동차량으로 맹이학교나 관계기관에 자료를 보내는 방법, 플로피도서의 경우는 메일로 보내는 방법 등이 있었다.

표 1. 자료 요청의 방법과 건수

항 목	응답결과	서비스 실시관(%) -복수응답-	서비스의 총 시행건수(%)
전화에 의한 요청		12(75)	51,128(78)
내관하여 요청		10(62.5)	9,832(15)
인터넷을 통한 요청		5(31.25)	2,294(3.5)
기타 방법		6(37.5)	2,294(3.5)
합 계		16	65,548(100)

표 2. 자료의 대출방법과 건수

항 목	응답결과 서비스 실시관(%) -복수응답-	서비스의 건수(%) -16관의 평균-
우편으로 보낸다	13(81.25)	51,465(76)
본인이 직접 내관한다	10(62.5)	6,772(10)
대리인이 내관한다	9(56.25)	1,016(1.5)
방문배달한다	8(50)	7,449(11)
기타 방법	2(12.5)	1,016(1.5)
합 계	16	67,718(100)

표 3. 정보서비스의 시행 기관수와 건수

항 목	응답결과 서비스 시행관(%) -복수응답-	서비스의 총 시행건수
정기적인 신착자료목록 발송	11(68.75)	3,768부 발송
대면낭독서비스	3(18.75)	30
방문낭독서비스	0(0)	0
카세트플레이어 대여	2(12.5)	32
전화의 음성정보서비스	7(43.75)	520
건의함	5(31.25)	84
이동도서관 운영	4(25)	12,036
최신정보안내	9(56.25)	1,861
기타 방법	5(31.25)	
합 계	16	

### 3.3 정보서비스면

〈질문8〉은 자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서비스를 실시하여 시각장애이용자에게 다가가며, 그러한 서비스가 실제로는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의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설문지에서는 정보서비스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임의로 내려, 그 의미를 분명히 제시했다. “정보서비스란, 자료제공 이외에 시각장애자의 지적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온갖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질문 중에서

서술하고 있는 서비스 항목은, “자료에 접근하는 것을 돕고, 그 이용을 편리하게 하며, 때로는 자료를 읽는 것을 도와주는 기능까지, 시각장애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이다. 조사 결과는 표 3과 같다.

많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신착 자료의 목록을 발송”하는 것으로 보아, 점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안내하여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주로 점자도서관에 등록되어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신규등록자의 경우는 등록 후에

바로 보내진다. 목록은 점자뿐 아니라, 녹음 테이프의 형태로도 보내진다. 표 중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신착 자료의 목록을 발송하는 빈도에 대해서는, 연 1회에서 월 1회까지 폭이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신착 자료를 그 이용자에게 직접 알리는 최신정보안내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화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 신속히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화에 의한 음성정보서비스나 이동도서관과 같이 이용자에게 한층 다가간 서비스도 행해지고 있다. 한편 방문낭독서비스의 건수는 0이나,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할 자세를 갖추고 있어,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응한다는 기관이 있었다. 그 외에 개인희망에 의한 점역서비스나 인터넷이나 통신에 의한 정보서비스, 최신도서를 회원에게 직접 전화로 알리는 서비스도 행하고 있다.

〈질문9〉에서는 지역주민인 시각장애자에게 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복수응답을 요했다. 질문의 주된 의도는 회원 이외의 잠재이용자에게 점자도서관이나 정보서비스를 어떻게 알리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역신문에 게재한다 .....	5관(31%)
자관 제작의 광고매체를 배포한다 .....	9관(56%)
점자잡지 등의 자료에 홍보를 신는다 .....	5관(31%)
우편으로 소식을 알린다 .....	8관(50%)
인터넷 홈페이지에 홍보한다 .....	7관(44%)
특별히 홍보하지 않는다 .....	2관(13%)
기타 방법 .....	5관(31%)

점자도서관에 따라서는 바쁜 업무나 예산의 문제 등으로, 도서관측에서 특별히 홍보는 하지

않는 곳도 있다. 다만 그 경우라도, 이용자를 통하여, 이른바 입을 통한 잠재이용자에게의 홍보를 기대하고 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통신동호회, 전화의 자동응답서비스를 활용한 방법, 혹은 타 기관을 통한 홍보가 있다.

### 3.4 인터넷에 의한 정보서비스

〈질문11~15〉는 시각장애자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의 하나로서 인터넷상에서의 서비스 현황의 조사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서비스로서 대표적인 것은 각 점자도서관에 의한 홈페이지의 제공이다. 〈질문10〉에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한 점자도서관은 13관(81%)이다. 홈페이지를 가지지 않은 3관(19%) 중에서 2관은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을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질문14). 설문지의 답변은 없었으나 홈페이지를 가지는 점자도서관을 모두 포함하면, 점자도서관 전체 46관 중에서 19관(41%)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

홈페이지의 제공은 종래의 정보제공방식과는 확연하게 다른 형태이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질문11〉에서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복수응답을 하도록 하였다.

소장자료의 목록 .....	10관(63%)
자관에 대한 설명 .....	12관(75%)
시각장애자에 관한 문헌자료 제공 .....	6관(38%)
시각장애자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 .....	2관(13%)
다른 점자도서관의 정보 .....	2관(13%)
시각장애자를 위한 다른 사이트 .....	2관(13%)
기타 .....	2관(13%)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제공의 주된 역할로서, 점자도서관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자관에 대한 설명을 올린 도서관이 가장 많다. 자관에 대한 설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도서관 설립의 목적과 연혁, 건물 내부의 구조, 직원의 조직, 도서관의 일반적인 사항 즉 각 시설이나 이용에 관한 설명, 도서관의 위치이다.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각 점자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 목록의 제공이다. 목록의 제공에는 단순히 목록을 수동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료의 검색과 예약, 제작희망자료의 신청도 할 수 있는 곳도 있었다. 시각장애자에 관한 문헌자료란, 시각장애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해진 연구자료나 그것에 관련된 책이나 잡지 자료를 말한다. 그 외의 정보로서는, 신착 자료의 목록, 문화행사, 법, 복지관련자료가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모든 자료는 단순히 시각장애자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따라서는 텍스트 모드와 그래픽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의 홈페이지는, 그래픽 모드는 예쁘고 보기 편하며, 텍스트 모드는 음성으로 읽기 쉬운 형태로 표시된다.

홈페이지를 가지는 점자도서관이 많은 것에 반해, 그 홈페이지에서 시각장애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의 조사항목(질문12)에 대답한 관수는 상당히 적다. 특히 홈페이지의 음성장치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문자를 읽어주는 홈페이지가 1개 있었던 것 외에는 전혀 없었다. 따라서 문자를 읽어주는 장치나 배경음, 효과음 등의 제공에 대한 노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는 시각장애자용의 목록 및 원문제공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시각장애자

용의 문헌자료검색의 도입, 시각장애자가 이용하기 쉽도록 텍스트 형식의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하는 것등이 있었다.

인터넷상의 정보제공에 관한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정보의 신속성이다. 한번 홈페이지에서 제공한 정보가 적절히 유지, 관리되지 않으면 그 정보는 곧 소용없게 된다. 그래서 <질문13>에서는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갱신하는 시간간격을 조사하였다.

매일 .....	2관(15.4%)
주에 수회 .....	2관(15.4%)
월에 수회 .....	2관(15.4%)
연에 수회 .....	2관(15.4%)
거의 하지 않는다 .....	1관(7.7%)
기타 .....	1관(7.7%)
무응답 .....	3관(약23%)

점자도서관에 따라 간격에 차이는 있으나, 각 관별로 정보의 갱신은 되고 있다. 거의 갱신하지 않는다는 답과, 기타 의견에서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갱신한다는 답이 각각 하나씩 있었다. 전체적으로 정보를 갱신하는 빈도는 거의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 주에 여러 회인 대답에서는 주에 1~3회이고, 월의 경우는 월에 1~2회, 연의 경우는 연에 3회 정도라는 결과였다.

<질문15>에서는 이후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을 자유기재로 물었다. 실제로 응답한 의견으로는, 전자도서관서비스 즉 자료의 원문제공, 인터넷에 의한 도서신청, 시각장애자 통신동호회를 통한 정보제공, 플로피도서의 제작과 보급 등이 있었다.

### 3.5 그 외의 도서관서비스

〈질문16~17〉에서 도서관의 상호협력 및 정보제공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서술한다. 〈질문16〉에서 상호협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타 기관과 협력한다고 응답한 점자도서관은 9군데로 56%였다. 이어서 〈질문17〉에서는 상호협력을 행하고 있는 9관이 어떠한 상호협력을 하고 있는가를 복수응답으로 물었다.

종합목록의 제작 .....	3관(33.3%)
자료의 상호대차 .....	3관(33.3%)
점자도서관협의회에 참가 .....	5관(55.5%)
필요시 부정기적으로 모임 .....	3관(33.3%)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정보교환 .....	7관(77.7%)
기타 .....	1관(11.1%)

각 점자도서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교환이 제일 많다. 또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에 참가하여, 레포트나 연구의 발표, 시각장애자의 입장에서 의견교환 등을 하고 있다. 의외로 점자도서관의 도서종합목록의 제작에 참가하는 관이 적어, 각 점자도서관에 있어서 자료의 중복제작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기타 협력으로는, 공동프로젝트의 일환으로 CD Player와 약 100종의 CD도서의 보급이 있었다.

〈질문18〉에서는 시각장애자를 위해 어떠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가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물었다.

컴퓨터교육 .....	6관(38%)
점자교육 .....	6관(38%)

맹인용구의 보급 .....	4관(25%)
직업의 소개 .....	1관(6%)
기타 .....	7관(44%)

각 항목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설문조사와 점자도서관의 자료를 참고로 만들었다. 그러나 항목 중에서 “그 외”의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도 실제로는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컴퓨터교육이나 점자교육은 점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이미 잘 알려진 서비스이나, 실제로 행하고 있는 관은 응답기관의 반을 넘지 못한다.

기타 의견으로는, 실시하고 있는 관수는 적지만,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중도실명자를 위한 보행훈련이 있다. 또한,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컴퓨터 교육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상세히 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를 소개하거나, 요구된 자료를 녹음하기도 한다. 더욱이 그룹 홈의 운영, 수영장 이용, 내관을 위한 차량 안내, 방문대출, 생활안내서의 제작 및 보급도 행하고 있다.

## 4. 점자도서관의 서비스 동향

### 4.1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의 동향

정보기술을 직접적으로 점자도서관서비스에 반영시킨 대표적인 예는 인터넷에 의한 서비스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자도서관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을 통하여 자료신청을 한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서비스로, 본 조사에서는 16관 중 5관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금씩이기는 하나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 신청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요청된 자료를 메일로 보낸다. 인터넷으로 자료를 신청하였다고 해도 타인이나 본인이 내관하여 자료를 빌리는 경우가 많으면, 진정 인터넷을 활용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996년의 연구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으며, 본 조사결과에서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 디지털화된 자료를 직접 메일로 받는 케이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기술의 영향이 가장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 점자도서관의 홈페이지임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 본 조사에서 46관중 19관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며, 또한 인터넷 정보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이러한 서비스의 제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각장애자용 홈페이지를 작성하거나 혹은 음성합성장치 등과 같이, 시각장애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층 더 공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도서관측에서 메일로 이용자에게 신착 도서 안내를 한다. 기존의 서비스를 보완하여,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최신자료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섯째, 홈페이지나 메일을 통해 자료나 도서관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피드백한다. 이것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볼 수 없는 서비스이며, 이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여섯째,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활동을 한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아직 실행하고 있는 관수는 적으나, 홈페이지를 가지는 관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홍보서비스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일곱째, 점자도서관이 인터넷이나 컴퓨터 전반에 있어서 교육의 장으로 이용된다. 여덟째, 인터넷을 이용하여 도서관장서 이외의 자료를 얻기 위한 환경, 즉 컴퓨터와 특수기기, 인터넷 접속환경을 제공한다. 시각장애자 개인적으로 이러한 기기 등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보다 많은 시각장애자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 하나의 장비를 여러 명의 시각장애자가 공유한다면 보다 많은 시각장애자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장비를 공유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가 필요하며, 시각장애자를 위해 존재하는 공적인 장소로서는 점자도서관이 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점자도서관에 인터넷의 도입으로 인한 서비스의 직접적인 변화 외에도 인터넷과 관련된 간접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 첫째, 홍보활동이 다시금 행해지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도록 시각장애자에게 홍보활동을 시행한 것을, 선행연구를 통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용자수의 증가와 자료제작과 제공서비스의 중시로 홍보활동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정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현재, 홍보활동의 중요성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다. 다만 홍보의 의미가 새로운 이용자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변화 및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이다. 둘째, 점자도서관실과 특수점자

도서관의 역할이 다르다. 선행연구에서는, 점자 도서관은 정보의 제공을, 특수점자도서관은 정보의 제작과 제공을 함으로써 효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의 동향은, 공공도서관은 홈페이지를 가지는 관이 많기 때문에 점자 도서관은 그것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특수점자도서관은 자료의 디지털화와 함께 제공에 주력하여 이용자에게 가장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점자도서관이 이전에는 자료제공기능을 충실히 행하기 위하여 타 기관과 협력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지금은 관 수는 늘었어도 각 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이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이에 반해 특수점자도서관의 서비스는 다양화되고 확대된 점으로 볼 때,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점자도서관은 줄어들고, 시각장애자에의 서비스 제공은 특수점자도서관에 집중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예상 이상으로 디지털화 된 자료의 양이 많다. 이와 함께 디지털화 된 자료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넷째, 컴퓨터 교육이나 인터넷 사용을 위해 시각장애자가 내관하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도서관 차량을 운영한다. 시각장애자의 고정적인 행동범위를 넓히고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지한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입장을 생각한 이러한 서비스의 실시에는 충분한 의의가 인정된다. 다섯째, 도서관의 협력으로, 제공하고 있는 도서관서비스에 관한 정보 교환이 많다. 선행연구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협력으로는 자료의 교환이나 종합목록의 작성 등과 같이 자료에 관한 협력이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의하면 자료의 협력보다도 서비스에 관한 협력이 가장 많았다. 이것은, 점자도서관의

서비스가 자료의 제공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며, 변화하고 있는 정보환경이나 이용자에게 대응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 4.2 인터넷과 관련된 점자도서관의 기능

점자도서관은 정보제공의 기능 외에도 교육의 기능, 일반인에 비해 행동범위가 고정적인 이용자를 보조하는 기능이 있으며, 이른바 시각장애자의 생활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 사실은 정보기술의 영향이 있기 전이나 후에도 변함이 없다. 특히 인터넷 등장 후, 점자도서관에는 시각장애자의 인터넷사용을 보조하는 기능이 추가되어, 점자도서관의 중요성은 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점자도서관은 정보기술 특히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낼 수 있다. 첫째, 인터넷상의 정보유통을 보조하는 기능이다.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되지 않고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하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저작권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허용되지 않는 한 저작물은 인터넷상에서 유통될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야말로 가치가 있거나 중요한 정보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통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점자도서관에는 인터넷에서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 즉 정보유통을 보조하는 기능이 인정된다. 둘째, 인터넷을 이용하여 종래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이다. 예를 들면 홍보가 그렇다. 도서관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통신이나 공공계시판을 통하여

점자도서관의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잠재적인 이용자를 발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반인의 인식도 높일 수 있다. 또 이용율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서비스의 질 향상에 반영된다. 본 조사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의 동향으로서, 홍보활동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점자도서관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인터넷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요구나 메일에 의한 자료 받기, 또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로, 이것들은 본 조사에 따르면 이미 조금씩 시작되고 있다.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도서관서비스의 이용이 상당히 편리하게 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측의 업무도 효과적으로 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는 보다 증가할 것이다. 넷째, 인터넷과 관련된, 점자도서관 본래의 기능 이외의 기능이다. 점자도서관은 원래 활자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 시각장애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의 일상생활에서 지적생활까지를 원조하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특히 정보기술의 영향에 따른 인터넷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하면, 컴퓨터 교육을 들 수 있다. 점자도서관에서 컴퓨터 및 특수 기기를 갖추고 시각장애자에게 교육을 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각장애자가 점자도서관의 컴퓨터를 공유하고 인터넷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에 따른 정보화

경의 변화 속에서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의 점자도서관서비스의 동향을 살필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시켰다. 전장까지 서술한 내용으로부터,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에 대해서 점자도서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각장애자의 생활전반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복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점자도서관의 자료제공의 기능에서 정보공공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다분히 시각적인 활자정보를,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복지의 의미를 가진다. 또 자료의 목록을 제공하고 점자도서관서비스를 홍보하는 것도, 결국 시각장애자가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여 자료나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자료만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도서관의 기능과는 다른, 복지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시각장애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기능으로는 각종 재활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자가 생활상 느끼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복지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조사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점자도서관서비스의 동향에서 이러한 복지기능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의한 자료 신청에 대해 디지털화 된 자료를 메일로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점자도서관 자료제공서비스의 향상된 형태이다. 홍보활동 또한 광범위하게 전개할 수 있게 되어, 이전의 활동에 비해 보다 나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 컴퓨터교육이나 내관자를 위한 차량운영서비스도, 시각장애자를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의 복지기능에 새롭

게 첨가되고 있다. 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점차로 일반화가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서비스의 동향은, 종래의 점자도서관의 복지기능을 보다 향상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한 기능을 가지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점자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인에게는 점자도서관의 복지기능에 대한 인식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점자도서관은 점자라고 하는 용어와 도서관이라고 하는 용어의 고정관념으로, 일반의 공공도서관과 같이 자료제공이 주목적인 기관이며, 단지 이용대상이 시각장애자라고 하는 점에서 다를 뿐이라고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 생각은 선행연구의 내용으로부터도 추정할 수 있다. 즉 점자도서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서비스는 자료제공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행해지며, 그 외의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은 그리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하여,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의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을 모든 면에서 보조하는, 복지기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하면, 점자도서관의 복지기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도와주는, 시각장애자의 “눈”으로서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눈”의 의미는 단순히 본다는 것만은 아니다. 보는 것에 의해서 행동범위가 넓어

지며, 자유롭게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즉 생활상에서 무엇하나 불편한 것이 없는 일반인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점자도서관의 “눈”으로서의 역할은 바로 시각장애자의 지적생활을 일반인과 동등하게 되도록 지지하고,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보조하고 있다.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자의 “눈”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본 연구의 서두에서 서술한, “인터넷의 등장에 따라, 점자도서관의 존재는 무의미해지는가”라고 하는 문제의식에 대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자 한다. 시각장애자에게 있어서 점자도서관은, 일반인에게 있어서의 공공도서관과는 그 의미가 크게 다르며,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이 “눈”의 기능은 다른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점자도서관이기에 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점자도서관의 존재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IT대혁명의 이익을 모든 시각장애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나, 인터넷상에 유통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점자도서관 이외에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비로소 시각장애자의 보는 작업, 이른바 행동범위를 넓히고 자유롭게 정보를 얻는 작업을 충분히 지지하여, 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자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현경. 1997.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옥금. 1998. 『시각장애인 도서관 설치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설진화. 1987.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송순임. 1994.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의 새로운 모형방안』.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신동렬. 1991. 『시각장애인의 실태조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혜선. 1992.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봉사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 제6집
- 이상근. 1977. 『시각장애자를 위한 특수도서관 봉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사회사업대학교 대학원.
- 이충재. 1986. 『시각장애자에 대한 도서관 봉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정영숙. 1993. 『시각장애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조종석. 1991. 『한국의 맹인도서관 실태분석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편. 1996. 『전국 점자도서관(실) 종합도서목록』서울: 한국점자도서관협의회.